

## 성화의 길

(에베소서 4장 17절 ~ 4장 24절)

9월 10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17~19 절의 말씀과 4:20~24의 말씀을 대비 시켜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야할 우리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삶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천국으로의 초청장을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 받기 이전의, 옛 사람의 삶을 사는 일부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 (현재 우리들의 모습) 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 성화 = 聖化 = Sanctification), 부름받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 ◆ 옛 사람과 새 사람 (엡 4:17~24)

17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18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니다. 21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24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위의 말씀 에베소서 4:17~24 이전까지의 구절에서는,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17절 부터, 갑자기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옛 사람의 삶’과, 변화 된 ‘새 사람의 삶’의 예를 들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곡히 권고하고 있다. 즉 성도 한명 한명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했을 때, 성도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중에 믿음의 종착역인 ‘하나님 나라 (천국)’ 에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그러려면 옛 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주일 날 교회 예배에 출석 한다는 이유 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목장 식구들을, 그리고 교회를 성심으로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합당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성화의 길’은, 생명의 길이며 천국의 길이다.

### 1) 옛 사람의 삶 (4:17~19)

17절에 나오는 “이제부터”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때’ 를 의미한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다. 에베소 교회에도 ‘옛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요즘음의 교회에도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의 꾸중은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옛 사람의 삶 (= 이방인의 삶) 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7절에 나오는 “허망한 생각”은 ‘방향과 목표가 없다’ 는 뜻이다.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 만을 가지고 살며, 진정한 ‘영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삶을 말한다. 18절에 나오는 “지각이 어두워지고” 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인간의 이해력’ 이 어두워졌다는 뜻이다.

자연인처럼 영적인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無知) 해져서 “마음의 완고함”(= 마음이 굳어져서 마비되는 현상) 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게 된다는 뜻이다.

19절에 나오는 “수치의 감각을 잃고” 는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감각을 잃는다’ 는 뜻이다. “방탕” 은 ‘영적인 삶의 기준이 없는 삶’을 얘기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막 사는 삶을 의미한다. “더러운 일”은 ‘모든 선한 일’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실수로 선하지 못한 일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탐욕’을 가지고 ‘더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는 뜻이다.

## 2) 새 사람의 삶 (4:20~24)

영적인 기준이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허망한 삶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은 무엇인지 공부해 보자. 에베소서 4:17~24 절의 말씀을 보면, 유독 “여러분은” 이나, “여러분이” 가 자주 나온다. (17절, 20절, 21절, 22절) 이 뜻은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거듭난 너희들’ 이란 뜻이다.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며, 따르는 자’ 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의 가치들을 새로운 삶의 교훈을 통하여 물려 받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변화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이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새 사람의 삶 (= 성화의 길 =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을 살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다.

###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이방인들 (옛 사람들) 의 습관을 버리자.
-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감사하자.
- 하나님의 정체성이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나를 통해 흘러 나가도록 노력하자.